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8



Contents

※ 2025.05.02.(금) 기준(대상 기간 : 2025.04.24.~2025.04.3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경남도,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공모 선정(2025.05.01) 1
 - 울진군,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산업 본격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가속(2025.05.01) 1
 -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 울산 '카프로' 방문 및 사업 전환 집중 조명(2025.05.01) 2
 - 대전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 선정으로 미래형 교통도시 도약(2025.05.01) 2
 - 충북도,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박차(2025.05.01) · 2
 - 제주 에너지 생산량 20% 풍력·태양광·수소가 담당, 그린수소 확대 안정화(2025.05.01) .. 3
- 우주
 - 합참, 주한미우주군과 첫 '한미 우주위협 대응연습' 실시(2025.05.02) 3
 - 첫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사천 개최 유력(2025.05.01) 4
 - 누리호 발사장 등 공개, 고흥 우주항공축제 개막(2025.05.02) 4
 - 항공우주산학융합원-포천시, 최첨단 모빌리티 산업 협력 강화(2025.05.02) 5
 - 전주시 '우주로1216', 청소년 만족도 높은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2025.05.04) 5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석유관리원,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025.05.02) 6

▪ UAM

- 한국공항공사, 대학생 대상 UAM 버티포트 설계 공모전 개최(2025.05.04) 6

▪ 우주

- 한국 큐브위성 K-레드큐브, 美 아르테미스 2호 탑재 우주행 확정(2025.05.02) 7
- 경남TP, 우주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개발 지원 착수(2025.05.02) 7
- 인천혁신센터-대한항공, 항공우주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2025.05.02) 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카프로, 국내 최대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수소경제 밸류체인 공급망 가동 본격화(2025.05.01)8
- 세계 최소 1나노미터 무기반도체 이용 태양광 수소 생산 성공(2025.05.01) 9
- 우석대학교·군장대학교, 5개 기관과 수소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05.01) 9
- 중앙대학교와 KIST, 청정수소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05.02)10
- 중국, 글로벌 수소 시장 장악력 확대...수전해 생산 절반 차지 주장(2025.05.01) 10
- 中 2024년 수소에너지 소비, 세계 최대 규모(2025.05.05) 10
- 풀체인지 '넥쏘' 출시 임박에 따른 국내 수소차 5만 대 돌파 전망(2025.05.05) 11
- "원전은 느리고 수소는 아직 먼 길",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 LNG에 쏠리는 시선(2025.05.06) 11

■ UAM

- 대한항공, 부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 UAM·항공안전 연구·개발 센터 추진(2025.05.01) 12

■ 우주

- LIG넥스원, 3207억 규모 '천리안위성 5호' 개발 협약 체결(2025.05.01) 13
- 국립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내년 입학정원 24명으로 증원(2025.05.01) 13
- 중국, 크루즈·우주선 자체 제작 등 기술 자립 가속화(2025.05.01) 14
- NASA 예산 24% 삭감 결정, 美 우주산업 기업 주도로 전환 가속화(2025.05.04) 14
-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예산·기술이전 지원 법안 2건 국회 통과(2025.05.02) .. 1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경남도,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공모 선정(2025.05.01) - 경남도가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액화수소 상용차 기술 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함. 2029년까지 총 195억 원(국비 100억)을 투입, 액화수소의 장점인 작은 부피를 활용하여 장거리 운행을 가능케 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예정임. 국내 부족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이 주요 목표로 설정 - 2027년까지 밀양 나노산단에 액화수소 저장시험동 등을 건립하고, 연구장비 8종 구축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국제표준 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액화수소 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지원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창원 기체수소 인프라에 이어 밀양에 액화수소 기반을 확장, 경남을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조성함. 이번 사업은 경남의 수소경제 선도과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
	□ 울진군,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산업 본격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가속(2025.05.01) - 울진군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산업 확장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본격화함. 최근 서울에서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 정기총회'와 '울진 대용량 수소생산 전략 수립 전문가 그룹 위원회'를 개최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다짐. 국내 주요 에너지·건설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기대감을 모음 - 20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3개 분과로 나눠 사업계획과 협력방안을 논의함. 손병복 군수는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 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 협력을 강조함. 전문가그룹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2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전문가위원회는 수소 생산공정 고도화,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을 논의, 2025년 말까지 정책 제안서 마련 예정임. 울진군은 예타 면제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 유치 및 기술 기반 마련에 집중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중심으로 도약 목표로 설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 울산 '카프로' 방문 및 사업 전환 집중 조명(2025.05.01) - 울산 카프로가 카프로락탐 생산에서 수소 생산으로 성공적인 사업 재편을 이룸. 업황 악화 속 신성장 동력 발굴 사례로,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태화그룹 인수 후 500억 원 신규 투자를 단행 - 카프로는 기존 공정을 활용해 수소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함.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를 건립, 시간당 1.78톤 출하 능력을 확보함. 향후 LNG 직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 증대도 기대 - 지난달부터 수소공장을 가동해 주요 기업에 공급 중이며, 5월 1일부터 전국 공급을 개시함. 고압 용기 상용화 시 운송비 절감 및 시장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산화탄소 활용 등 다양한 신사업도 모색하며 울산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할 전망
	□ 대전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 선정으로 미래형 교통도시 도약(2025.05.01) - 대전시가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소트램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착수함. 2027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 교통거점에 수소 압축·저장·충전 설비 및 상용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 -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2028년 개통 목표인 순환형 트램으로, 전국 최초 수소트램 도입은 친환경 교통 시스템의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음. 이번 공모 선정은 수소트램 성공 기반 마련과 미래형 교통도시 전환 가속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2027년까지 1단계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후, 2단계 사업을 통해 안정적 운행 지원 및 도심 내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확대할 방침임. 대전시는 이를 미래형 교통도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 충북도,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박차(2025.05.01) - 충북도가 청주시를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2026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함. 약 400억 원 규모로 교통, 주거, 산업 전반에 수소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 - 사업 핵심은 수소 생태계 확장으로, 현대차와 협력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건립,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수소튜브 트레일러 도입 등을 계획함. AI 기반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으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 - 기존 수소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중부권 최대 수소도시 도약을 목표로 함. 청주시는 연말까지 수소버스 82대를 도입해 대기환경 개선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창출을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제주 에너지 생산량 20% 풍력·태양광·수소가 담당, 그린수소 확대 안정화(2025.05.01) -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20%에 도달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큰 성과를 보임.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총발전량의 19.96%로, 전국 평균(8.5%)의 두 배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 - 지난해 풍력발전량이 가장 많았고 태양광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 4시간 동안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도 달성함. 한림해상풍력 단지 가동 등 인프라 확충도 지속 - 그린수소 분야도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3.3MW급 수전해 시설 상용화로 연간 생산량이 1.9톤에서 29톤으로 늘어남.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안정화 및 수소차 72대 운행, 국내 최초 그린수소 유료화 등 실질적 성과 창출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합참, 주한미우주군과 첫 '한미 우주위협 대응연습' 실시(2025.05.02) -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우주군과 제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TTX)을 실시하며 우주위협 대응역량 강화에 나섬. 연습은 적의 GPS 전파교란 및 위성 위협 상황 등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양국은 지난해 11월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에서 한반도 우주위협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합 연습 실시에 합의한 바 있음. 이번 연습에는 합참, 각 군, 주한미우주군 외 유관기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 - 공방표 합참 군사우주과장은 향후 한·미 간 정책 공유와 협력을 지속하고 정례적 연습을 통해 우주역량 고도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 우리 군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지자체	□ 첫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사천 개최 유력(2025.05.01) - 논란이 됐던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장소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념식이 기존 과천에서 사천으로 변경되었음을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힘. 다만, 과학관 행사 등은 과천에서 유지될 예정 - 당초 우주항공청은 전국적 붐업 등을 이유로 과천 개최를 고려했으나, 경남도의 회와 박완수 지사, 사천시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함. 지역사회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며 투쟁까지 예고 - 이에 우주항공청은 기념식 장소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사천 개최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임. '우주항공의 날'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로 지난해 11월 5월 27일로 지정
	□ 누리호 발사장 등 공개, 고흥 우주항공축제 개막(2025.05.02) -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열림. 특히 오는 11월 4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 실물과 우리나라 우주항공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음 - 올해 15번째를 맞은 축제는 140여 가지 우주항공 전시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예정임. 누리호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올해는 견학 인원을 7,600명으로 대폭 확대 - 축제장 인근 나로항도 활기를 띠며, 지자체는 방문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음. 이번 축제는 3일부터 나흘간 계속되며, 우리나라 우주 관문으로서의 고흥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항공우주산학융합원-포천시, 최첨단 모빌리티 산업 협력 강화(2025.05.02) -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경기도 포천시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유네스코 한탄강’ 기술 특화지대를 기반으로 연구와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 - 협약 주요 내용은 원천기술 확보, 육공협력 실증시험장 지원, 무인이동체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획, 탄소중립 협력 등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UAM 및 드론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수행 중인 국책사업 기관 - UAM 경험이 풍부한 융합원과 첨단 인프라를 보유한 포천시의 협력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희정 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 및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 전주시 '우주로1216', 청소년 만족도 높은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2025.05.04) - 전주시 시립도서관 꽃심 내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 '우주로1216'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지역 대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인정받음. 운영 5년 차 영향연구 결과, 공간 이용에 따른 혜택이 약 12억 4000만 원으로 분석 - 연구는 유사 대체 공간 이용 비용을 기준으로 혜택을 화폐가치로 환산했으며, 비이용자 대상 설문에서는 운영 재개 지불 의향 금액 기준 비이용 가치가 100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남. 이용자 만족도는 95%에 달했으며,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주요 방문 이유로 꼽음 - 이용자 중 59%는 새로운 시도 두려움 감소, 61%는 창의적 자신감 향상을 경험했으며, 행복감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나타남. 부모 역시 자녀의 도서관 방문 즐거움 증가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함. 전국 최초 트윈세대 전용 공간으로 4년간 3만 6000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석유관리원,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025.05.02) -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송용 수소 공급 활성화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여자를 16일까지 모집함. 이 사업은 산업부 수소 유통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수소 운송장비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 - 총 사업비 24.53억 원, 국고 보조율 50%로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17대, 액화수소 탱크로리 1대를 지원할 예정임. 1대당 구매금액의 50% (기체 최대 1.12억, 액화 최대 5.5억)를 지원하여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기대 - 지원대상은 수소생산자, 유통사, 충전사업자 등이며,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함. 선정 시 최소 운영 기간(60개월) 동안 수송용 수소 운송에 한정 사용 조건이 있음. 석유관리원은 이를 통해 수소 운송료 인하 및 유통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국공항공사, 대학생 대상 UAM 버티포트 설계 공모전 개최(2025.05.04) -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UAM 버티포트 설계 공모전'을 6월 20일까지 개최함. 버티포트는 UAM의 이착륙 및 충전 시설을 의미하며,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의 일환으로 UAM 사업 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 - 공모전 주제는 '공공 목적의 UAM 버티포트'로, 경찰·소방·재난·의료 등 공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서비스 제공 시설을 대상으로 함. 심사기준은 공공서비스 연계 운영 컨셉 구체성, 시설 규모 실현 타당성, 디자인 표현력, 4차 산업 기술 융합 혁신성 등 -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작품을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최우수상) 등을 시상할 계획임. 선정작은 10월 29일 경북 김천 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리는 UAM 올림피아드에서 시상 및 전시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올림피아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국 큐브위성 K-레드큐브, 美 아르테미스 2호 탑재 우주행 확정(2025.05.02) - 우주항공청이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아르테미스 2호 내 큐브 위성 K-레드큐브(RadCube)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함. 약정에는 발사 전 준비부터 운용·폐기까지 양측 역할과 책임, 과학 데이터 공동 활용 원칙 등이 포함 - NASA는 K-레드큐브를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해 발사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며, 우주청은 7월 개발 완료 후 NASA로 인도, 발사 후 운영을 담당함. 아르테미스 2호는 유인 달 탐사 임무의 일환으로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K-레드큐브를 탑재할 예정 - K-레드큐브는 우주방사선이 유인 우주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내 개발 반도체 소자의 방사선 내성 특성을 검증할 임무를 수행함. 이번 약정으로 내년 4월 발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며, 획득 데이터는 국제 심우주 탐사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방기관	□ 경남TP, 우주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개발 지원 착수(2025.05.02) -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도내 우주항공ICT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접수를 5월 20일까지 실시함. 이는 국내 개발 항공기 적용 ICT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설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우주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12개 기업이 사업화 성과를 냄. 올해도 선정 기업에 과제지원금 외 전문가 기술컨설팅, 전시회 참여 기회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도울 예정 - 경남TP는 6월부터 ‘경남 우주항공ICT 산업 발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기획, 기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인천혁신센터-대한항공, 항공우주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2025.05.02)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2025 대한항공 항공우주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함. 국내 항공우주산업 혁신과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 모집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며, 모집 분야는 스마트팩토리 기술, 우주비행체용 홀추력기 및 키스태이지 개발 등임. 최종 선정된 3개사 내외 기업에는 총 4500만 원 규모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 - 대한항공과의 공동 기술검증(PoC) 기회, 인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멘토링,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제공될 예정임. 사업설명회는 15일 개최되며, 26일까지 이메일로 지원 가능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카프로, 국내 최대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수소경제 밸류체인 공급망 가동 본격화 (2025.05.01) - (주)카프로가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를 준공하고 수소 경제 밸류체인 공급망으로서 공식 운영을 시작함. 기존 카프로락탐 제조업체에서 고순도 수소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함. 이는 기존 수소 인프라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 재편 사례로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태화그룹 인수 및 본사 울산 이전 후 첫 대규모 성과로, 지난달부터 주요 기업에 수소 배관망 판매를 시작함. 수소출하센터는 시간당 2만㎥ 출하 능력으로 하루 넥쏘 8,500대 공급 가능 물량 - 튜브트레이러 18대 동시 충전 시설과 향후 450bar 충전 설비 공간까지 확보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함. 박성명 대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참여 및 전국 수소 공급 부족 해소, 울산 수소산업 중심도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대학교	□ 세계 최소 1나노미터 무기반도체 이용 태양광 수소 생산 성공(2025.05.01) - DGIST 양지웅 교수팀이 공동연구로 세계 최소 크기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에 최초로 성공함. 1나노미터 이하 '카드뮴 셀레나이드 클러스터'를 수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광촉매로 응용 -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는 표면 원자 노출로 촉매 반응성이 기대되나 구조적 불안정성이 문제였음. 연구팀은 3차원 초구조 설계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별 클러스터 특성을 유지 - 클러스터 내 코발트 이온 도핑으로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켜 광촉매 기반 수소 발생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함. 이번 연구는 극소 양자 반도체 소재의 에너지·환경 및 양자과학 분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노 레터스'에 게재 □ 우석대학교·군장대학교, 5개 기관과 수소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05.01) - 우석대와 군장대가 국내 수소산업 연대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5개 주요 기관과 '글로벌대학30'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 - 협약식에는 양 대학 총장 및 협약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함. 우석대 글로벌 30추진본부와 완주수소연구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장비·시설 공동 활용, 학술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 - 교육·연구 사업 공동 참여, 재직자 교육훈련,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각적 협력을 계획함. 이를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과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중앙대학교와 KIST, 청정수소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05.02) - 중앙대학교가 KIST와 청정수소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와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협약은 연구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 기술·인력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 - 중앙대 융합공학부·화학공학부는 KIST 청정수소융합연구소와 수소 전주기 융합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함. 오상록 KIST 원장은 양 기관 협력이 수소경제 구현에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KIST와의 협력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양 기관은 2015년 학·연 협동 과정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연구 연계 인재양성과 임무 중심 공동연구 체계를 본격 구축할 계획
해외	□ 중국, 글로벌 수소 시장 장악력 확대…수전해 생산 절반 차지 주장(2025.05.01) - 중국이 지난해 수소 생산 및 소비량 3650만 톤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특히 친환경 수소 기술인 '수전해' 생산 점유율도 절반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의지 표명 - IEA도 중국의 수소 생산력 우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자국 수전해 생산능력이 전 세계의 50% 이상이라고 밝힘. 현재 600개 이상 수전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완공 시 연간 생산능력은 약 12.5만 톤에 달할 전망 - 중국은 신장 그린수소 프로젝트 가동 등 꾸준한 산업 육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540여 개, 수소차 2.4만 대를 보급함. 다만 그레이수소 비중이 높아 친환경성 확보는 과제이며, 15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수소 산업을 지속 육성할 방침 □ 中 2024년 수소에너지 소비, 세계 최대 규모(2025.05.05) -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지난해 수소 에너지 생산·소비량이 3650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발표함. '그린수소' 생산 능력도 세계의 절반인 12.5만 톤을 차지한다고 밝히며 양적·질적 성장을 강조 - 중국 내 수소 생산은 내몽골 등 에너지 자원 풍부 지역 중심이며, 현재 150건 이상의 그린수소 사업이 서북부와 화베이 지역에 집중 추진 중임. 이는 중국 정부의 그린수소 허브 구축 전략으로 풀이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수소충전소 540곳 이상, 연료전지차 약 2.4만 대 보급 등 활용 인프라도 빠르게 확장 중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아래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수소에너지 육성 의지가 확고
기타	□ 폴체인지 '넥쏘' 출시 임박에 따른 국내 수소차 5만 대 돌파 전망(2025.05.05) -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이 5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차의 2세대 폴체인지 '디 올 뉴 넥쏘' 출시가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5월 내 판매 예정인 신형 넥쏘는 7년 만의 완전 변경 모델로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디 올 뉴 넥쏘'는 콘셉트카 '이니시움' 기반의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적용함. 시스템 효율 및 모터 출력 개선으로 제로백 7.8초대, 5분 충전 시 700km 이상 주행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 - 2세대 넥쏘 출시로 국내 수소차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월 말 기준 누적 보급 3.9만 대로,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원(승용 1.1만 대, 버스 2천 대)에 힘입어 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완전은 노고 수소는 아직 먼 길",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 LNG에 쏠리는 시선(2025.05.06) -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중요한 '브릿지 에너지'로 주목받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 불안정 한계를 보완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안으로 부상함.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공급 안정성이 높음 - LNG는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며, 평균 1.8시간 내 신속 가동으로 수요 급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함. 반면 재생에너지는 가동률이 낮고, 원자력은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수소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 - LNG는 출력 조절 용이성과 상대적 친환경성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액화 시 부피 감소로 수송이 용이함. 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 중이며, 국내 기업들도 LNG 사업 확장 적극 추진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대한항공, 부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 UAM · 항공안전 연구 · 개발 센터 추진(2025.05.01) - 대한항공이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래항공교통(UAM) & 항공안전 연구 · 개발(R&D) 센터’ 신설을 추진함.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맞춰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사와 김포공항 접근성이 좋은 부천시에 입지 선정됨. 지난 30일 관련 기관들과 단지조성 협약을 체결 - 센터는 부천대장지구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2만 평 부지에 운항훈련센터, 무인기연구센터, 안전체험관 등을 포함하며 축구장 10배 규모로 조성됨.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5월 가동 목표이며, 완공 시 석 · 박사급 인력 포함 1000여 명이 상주하는 항공 R&D 및 교육 복합단지가 될 전망 - 운항훈련센터는 연간 2만 1600명 교육 가능한 아시아 최대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30대로 확대함. 무인기연구센터는 미래 전장 대비 무인기 SW · AI 연구를, 안전체험관은 사내 교육 외 지역 산업체 및 시민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날 계획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IG넥스원, 3207억 규모 '천리안위성 5호' 개발 협약 체결(2025.05.01) - LIG넥스원이 기상청 등과 총 3207억 5400만 원 규모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협약을 체결함. 이는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 위성이자 첫 민간 주관 정지궤도 위성 개발 사업으로 2031년까지 시스템 및 본체 개발이 진행될 예정 - 천리안위성 5호는 2031년 발사 후 적도 상공 3만 6000km 고도에서 24시간 기상·우주기상을 관측하는 세계 최고 수준 차세대 기상 위성을 목표로 함. 민간 기업이 정지궤도 위성 개발을 주관하는 첫 사례로 K우주 시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LIG넥스원은 SAR 등 위성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대전하우스 위성 체계종합·시험동 완공을 통해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임. 위성 시스템 통합 개발 역량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민간 주도 위성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
대학교	☐ 국립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내년 입학정원 24명으로 증원(2025.05.01) -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의 2026년 입학정원이 기존 15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됨. 이는 교육부로부터 정원 순증 승인을 받은 결과로, 2025년 3월 개교 이후 추가적인 정원 확보에 성공 - 국립창원대는 사천시와 지난해 4월 캠퍼스 설립 합의 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에는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부지 매입비 및 입학생 지원시책을 확정함. 박민원 총장은 현장실사평가에서의 노력과 국회 차원의 지원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었다고 밝힘 - 사천우주항공캠퍼스는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기반과 연계해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현재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임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본 캠퍼스는 2027년까지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5만 3083㎡ 규모로 조성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중국, 크루즈·우주선 자체 제작 등 기술 자립 가속화(2025.05.01) - 최근 중국이 두 번째 대형 크루즈선 '아이다·화청호'와 스마트 어업 양식선 '귀신1호 2-1' 등을 공개하며 해상·항공 장비 기술력 향상을 과시함. 칭저우 화물 우주선, 대형 수륙양용기 '쿤룽' AG600 등도 선보이며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장비들은 이전 세대보다 기술력이 향상됨. '아이다·화청호'는 건조 효율이 높아졌고, 칭저우 화물우주선은 저비용·고속 비행선으로 스마트 화물 관리시스템을 갖춘. '귀신1호 2-1'은 양식 공간 확장 및 에너지 소모 절감을 이뤘고, AG600은 부품 100% 국산화를 달성 - 전문가들은 대형 해상·항공 장비 발전이 전체 산업사슬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평가함. 중국 장비산업은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통해 고품질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크루즈, 스마트 양식선, 우주화물선, 수륙양용기 등은 관련 산업 파급 효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NASA 예산 24% 삭감 결정, 美 우주산업 기업 주도로 전환 가속화(2025.05.0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우주국(NASA)의 2026회계연도 예산을 248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24% 삭감하기로 결정함. NASA는 '달 착륙'보다 '화성 탐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요 우주 기술 자원을 재편하며 지속 불가능한 사업은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힘 - 핵심 타깃은 NASA의 대형 발사체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SLS는 고비용과 예산 초과 문제를 지적받음. 달 궤도 우주정거장 루나게이트웨이 건설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음 - 대신 트럼프 정부는 화성 탐사 예산을 10억 달러 증액하며, 스페이스X의 스타십을 활용한 유인 화성 탐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임. 업계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이 우주 탐사의 무게 중심이 국가에서 기업 주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
기타	□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예산·기술이전 지원 법안 2건 국회 통과(2025.05.02) -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인력 우선 배분 조항과 민간기업 기술이전 시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정책 실행력과 민간기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 국가 우주전략 이행 기반을 강화한 입법 성과로 평가됨. 기존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또한, 우주항공청장의 기술이전 대상 기업 자금 지원 명시로 기술 상용화와 민간 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함. 이는 민간 우주산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현장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